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확정

기획재정부 4개월 실사후 승인 전남도·여수시 행사 준비 탄력 2026년 7월 돌산 일원서 열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26세계섬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해,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4개

월간 타당성 조사 및 현지 실사 등을 실시했다. 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조직위원회 구성, 콘텐츠 개발, 국내외 홍보 등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30개국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게 될 이번 행사는 60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4000억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에선 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제관, 섬의 미래-문화-생태를 보여주는 부제관과 합

계 공동관, 섬살림문화관, 해상교량박물관 등 8개 상설 전시관을 운영한다. 또한 국가·지자체별로 1일 1점을 지정해 진행하는 스페셜테이블 비릇 연륙·연도교 투어, 힐링 섬 투어 등 부대행사도 준비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일정문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이 세계적 섬 매카로 힘차게 도약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여수시와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영암·해남 기업도시 활성화 온 힘

전담법인·관계기관 간담회 관광·에너지 등 투자유치 본격화

전남도가 영암·해남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관광·미래에너지 등 중점사업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서 전담법인,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영암 삼호지구는 지난 2019년 사우스링스 45홀을 개장하고, 현재 런웨이 GC(가칭) 18홀을 추가 개장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전남도, KLPGA와 골프특화 협력 협약을 하고, KLPGA 공식 TPC(Tournament Players Club), 골프아카데미, 박물관, 주거형 페어웨이 빌리지(250세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삼포지구는 올해 신규 투자자로 목포도시가스를 유치, 현재 문제부에 산업용지 5만1707㎡ 추가 등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중이다. 추가되는 산업용지에 자동차 부품개발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3개 기업이 확정됐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2050 탄소중립과 2035년 시행될 EU의 내연기관 거래제한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유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 구성지구에선 158만884㎡의 부지에 98M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솔라시도CC 골프장 18홀은 오는 27일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6만5000t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와 함께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골프장은 개장 시 8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연 80억원의 매출 달성이 전망된다. 또 RE100 전용 산업단지 및 발전단지, 재생에너지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트를 포함한 RE100 산업벨트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형 에너지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관심도 크다. 지난 4일 기재부는 구성지구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산업부 등 관련 부처 합동 태양광 관계자 현장간담회를 열어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부동지구에 RE100 전용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장기승변전설비계획 반영, 지역 거점형 스마트시티 지정 및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강상구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 지정 및 승인,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양수 등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8~49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9일 광주 북구보건서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번 백신 사전 예약은 접종 인원 분산을 위해 처음으로 10부제가 적용된다.

광주, 24건 돌파감염 추정·전남, 선박 종사자 감염 확산

음식점·사우나 등 산발적 감염 광주·전남 이틀새 51명 확진

광주와 전남에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방면에 따른 연쇄감염, 주점 등 유흥시설, 미확인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연근해 조업 선박 종사자 관련 확진자만 10명이 넘게 발생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휴일인 지난 8일 하루 동안 모두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확진자의 방면으로 시작된 음식점·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4명 더 늘었다. 광산구 소재 주점-PC방-노래연습장 방문자와 접촉한 n차 감염도 3명 더 발생했다. 해외유입 환자 4명, 서구 유흥업소 관련 2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 사례 1명 등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까지 광주에선 1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틀간 30명이 신규 확진돼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3575명이었다. 전남에서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모두 14명이 신규 확진됐다. 진도 7명, 여수 2명, 목포·담양·영광·완도·영암 각 1명이다. 진도 확진자는 모두 근해 어업 선원 관련 확진자들이다. 지난 5-6일 확진된 선원 3명을 포함하면 이 선박 관련 확진자만 모두 10명이다. 목포에서는 또 다른 근해어업 선박 관련 확진자 3명이 신규 확진됐다. 여수 확진자는 선원으로, 승선원 선제검사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목포 5명, 순천·나주 각 1명 등 모두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국에서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492명이 나왔다. 전국 누적 확진자는 21만2448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1455명, 해외유입 37명이다. 한편 광주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취약 시설 선제 검사에 들어갔다. 지난 8

일 북구 한 병원 요양보호사가 확진됐는데, 그가 지난 5월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 사례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동을 2주간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하고 환자 등을 4일 주기로 진단 검사하기로 했다. 직원, 환자, 보호자, 퇴원자 등 500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 35건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8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3건을 뺀 24건은 돌파 감염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 사례는 4건이었다. 광주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과 돌파 감염 사례 증가에 따라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60곳, 요양시설 229곳, 장애인 거주 시설 81곳, 기타 44곳 등 414곳 종사자 1만4040명을 오는 15일까지 검사한다. 진행하며 접종 완료자도 대상에 포함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모더나 공급 차질... 1·2차 접종간격 늘린다

고3 등 3주·초3~중3 교직원 5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2차 접종 일정도 일부 변경됐다. 특히 같은 백신을 맞더라도 대상군별로 1·2차 접종 간격이 3~6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1차 접종자의 경우 본인의 2차 접종 일정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렸다”고 전하면서 “이달 16일 이후 mRNA 백신의 2차 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1차 접종일로부터 접종 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간격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바뀌는 대상군은 지역어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등 직원(2만4000명), 50대 연령층(690만6000명), 사업장 자

체접종 대상자(31만7000명), 지자체 자율접종 2회차 대상자(65만명), 예약현황이 반영된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134만명), 18~49세 연령층(1526만4000명), 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2만9000명)이다. 75세 이상 어르신(46만명)과 ‘잔여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이달 16일 이후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만 6주 접종 간격을 적용받는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교직원 58만명의 접종 간격은 3주에서 5주로 늘어난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을 맞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고교 교직원, 기타 대입 수험생, 입영 장병의 경우는 기존에 공지된 접종 간격에서 변함이 없다. 고3 및 고교 교직원 62만2000명은 3주 간격으로 백신을 맞는다. 졸업생과 학교부 청소년 중수험생 등 기타 대입 수험생 10만명은 4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된다. 또 7~9월 입영 예정자로 병무청이나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7만명도 예방접종센터에서 3주 간격으로 백신을 맞는다. /연합뉴스

임아,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투자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삼가 人事드립니다.

금번 저희 모친 권병례 권사(故 공림 前 라인건설 회장의 미망인)의 상사시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왕림하셔서 애도와 조의를 표해주시고 저희의 슬픔을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 뵈고 인사 드림이 도리어오나 황망 중이옵기에 우선 이 지면을 통해 인사드림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年 8月

子	공병곤 공병하 공병도	外孫	오혜령 오정권 오혜진 오혜림
女	공선에 공선옥 공선경 공선영		김정우 김조희
子婦	이선희 오정화 양소영		조민지 조운상
私尉	오기홍 조명대 양성우		양나운 양훈지 양현석
孫	공유진 공승용		
	공유경 공승훈 공유민 공승현		
	공승운 공유림		

(주)라인건설 (주)동양건설산업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시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합병 공고

1. 줄은주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서원앤엔에이치(을)는 상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9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을 흡수합병하고 그 권리와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265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서에 관하여 이사와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당사자를 각 주주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3. 이 합병에 의하여 있는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거나 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줄은주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34(매곡동)
대표이사 양홍준

주식회사 서원앤엔에이치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34(매곡동)
대표이사 양홍준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정인(이하“갑”)과 주식회사 동해전기(이하“을”)는 2021년 08월 09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소방설비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하여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발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거나 바랍니다.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거나 바랍니다 이의 공고함.

2021년 08월 10일

“갑” 주식회사 정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 83-6 (케이티 영광법성포사(본동)법정)
대표이사 양명자

“을” 주식회사 동해전기
강원도 원주시 가현로 186, 1호(가현동)
대표이사 김원기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세상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산 정상 비로봉 선유동계곡 산행, 영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점 06:30
* 다음카페 광주시산악회 ☎ 010 7794 6920